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국불교를 알리다

'2012 러시아 관광박람회'서 한국 템플스테이 각광

한국불교의 대표 상품이자 포교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꼽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3월 17~20일 모스크바 근교 쿠쿠스 에스포장에서 열린 '제7회 인투어마켓(Intourmarket)'에서 한국불교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인투어마켓은 러시아가 자국민들의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러시아 경제 붐을 타고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제7회 인투어마켓에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러시아 주변국들을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등 138개국 1230개 여행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경 체험, 좌선, 선무도 시연, 연등 만들기 등 행사를 진행했다. 또 영어와 러시아어로 제작한 홍보용 영상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영국 관광객 등 유럽의 외국인들과 러시아 현지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서 인경 체험 등을 하며 감탄사를 토했다.

특히 모스크바 달마사 불자들이 비롯한 러시아 사람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타지아나 타르토바(24세·여) 씨는 "인터넷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해 알게 됐다. 한국에 꼭 한번 가 한국불교문화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에 갈 때면 한국 사찰에 들려 참선 수행을 한다"며 "인투어마켓에서 스님과 함께 참선을 하고 <반야



<반야심경> 인경체험 코너는 큰 인기를 끌었다.



직접 만든 연등(좌)과 연등제작현장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러시아 여성과 유럽 관광 산업 관계자들



불교문화사업단 3월 20일 러시아관광박람회 홍보 유럽 관광객 템플스테이 관심

심경)을 직접 탁본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행사를 주관한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견진 스님은 "러시아 정교 신앙이 깊숙이 자리 잡은 현지인들이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보내는 찬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템플스테이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방식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가능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견진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가 단순히 한국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접경이란 점에서 향후 러시아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어로 등 역경에 힘쓰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람회에서는 인형문화가 발달한 러시아에 맞춰 특별 제작된 '템플스테이 다종이 인형전'이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조계종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사찰'의 운영진이 홍보단으로 참가해 원활한 통역으로 한국불교를 알렸다. 아울러 홍보단은 국제 행사 참관을 통해 관광업계의 동향 파악 등도 진행했다.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사찰인 묘각사의 템플스테이 관광 여여 스님은 "러시아는 정치와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문화와 범신론적인 슬라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라며 "러시아인들 삶에 문화와 예술, 종교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 사람들에게 불교와 한국문화가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현재 독일, 프랑스, 뉴욕 등 해외 각지에서 템플스테이와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세계 4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독일 ITB 국제관광박람회와 파

다종이 인형전, 인경 체험 선무도 등 대중 반응 좋아 독일·프랑스에서도 인기

리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 전시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한국 불교 세계화는 불교를 넘어 한국브랜드를 알리는 의미도 크다"며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 불교전통을 통해 서양 사람들이 동양과 한국의 전통을 접하고 한국을 찾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2002년 33개 사찰로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전국 118개 사찰로 확대됐으며 누적 참가자 수도 7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과 세계인이 서로 소통하는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러시아에서 불교란?

종교를 아편으로 간주한 구소련의 자취가 남아있는 러시아에서도 불교가 있을까? 답은 '있다'다.

현재 러시아는 104개 민족이 120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며, 53개의 민족국가·자치기구 또는 민족 구역을 이루어 살아오고 있다. 다양한 민족 가운데는 러시아족·터키족을 비롯하여, 몽고족과 티베트족·한족(漢族) 그리고 한국인간 한족(韓族) 등이 있다.

러시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몽고나 중국 또는 티베트를 통한 것으로 18세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티베트 계통의 불교가 성행했다.

불교가 가장 성행한 부리아트에 위치한 승원(僧院)은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많은 탄압을 받았다. 박해에 대응해 러시아 불교는 자생(自生)을 위해 공산주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1929

년부터 러시아의 사찰은 폐쇄되기 시작했고, 1937년에는 부리아트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찰까지 폐쇄됐다.

공산주의 시대 러시아에서 불교는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특히 불교세가 강한 칼미크 지방에서는 1939년 불교도 학살이 있었고, 이후에도 시베리아 강제이주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현재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보고(1984)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인구의 0.1%에 해당하는 40만 명이 불교인구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세력 많은 탄압을 받았다. 박해에 대응해 러시아 불교는 자생(自生)을 위해 공산주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1929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실증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오벌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천왕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부산, 경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교육안내!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천왕사불교대학분원

강 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뿔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최고수로 가는길!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왕사에서는 전국 학인을 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단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현스님의 직강으로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쉽게 접할수 있는 학문입니다. 구단 구궁법의 많은 관심과 스님, 일반인 분들의 문의가 쇠도한 바 경기 의왕 천왕사에서 개강하게 되었사오니 동참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성 합장

· 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현스님 외에 강의 및 인쇄물, 저작물 등을 배포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 인터넷·TV·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도 포함 됩니다.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특 [구단구궁 원리도]